지역 메아리

정읍시, 단풍미인쌀 생산 농가 교육

정읍시가 최고 품질의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389농가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늘까지 재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재배 과정의 전기 매뉴얼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중기 재배 이행 사항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질소 비료를 줄이고 적기에 거름을 하는 등 미질 향상 재배법과 적기 물관리 등의 매뉴얼을 지켜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벼 후기 포장 관리를 위해 잡초 제거와 도복 방지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23명의 품질 관리원을 위촉, 해당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과 질소비료의 적정 사용을 지도 관리하는 등 품질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수매 시 3단계 검사를 실시하는데, 1단계 포장 검사, 2단계 단백질 함량 검사, 3단계 품위검사를 거쳐 품질이 우수한 원료만 매입해 가공·유통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밥맛이 가장 좋은 쌀의 단백질 함량은 6.0% 이하여야 한다"며 "6% 이상인 경우에는 수매에서 제외함으로써 '맛좋은 고품질의 단풍미인쌀'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식 · 상영회 오늘 열어

영상제작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화제작의 기초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고창군 주민시네마스쿨'이 오늘 동리시네마 2관에서 수료식과 수료작품 상영회를 개최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고창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주관한 '고창군 주민시네마스쿨'은 도내 작은영화관이 조성된 시·군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북도의 '주민의 삶의 질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소년 대상의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을 통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 이야기, 청소년들의 일상, 학교 이야기 등을 소재로 청소년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이번 수료식에서 선보인 작품은 '나, 너 그리고 우리(감독 이찬진)'로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한편, 수료 작품은 영화관 상영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에 방영할 계획이고, 지역 홍보 영상 등 다양하게 활용 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초도방문 시민의견 수렴 등 '분주'

노인복지시설에서 배식봉사 등 '구슬땀'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현안 파악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슈퍼맨급'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3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현안 사업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유시장의 당초 읍면동 초도방문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급박한 일정이 겹치면서 16일부터 20일까지로 조정됐다.

방문을 통해 유 시장은 읍면동 기관·단체장, 이·통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최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 시민 친절도 향상, 행정 서비스 개선 등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신태인 소재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배식봉사 등의 봉사활동도 갖는 한편 신태인터미널 등 민원 현장도 찾아 둘러보고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해 시정 방침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구현하고 5대 시정 방침인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현안 파악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립도서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9월부터 알짜배기 취업 컨설팅 제공

입사서류 작성법 · 취업교양강좌 등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공모한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고창군립도서관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해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 이미지 컨설팅, 취업교양강좌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고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더위도 잊고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취업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취미·교양·인문학 강좌 등 기존에 운영해온 강좌를 넘어 문화강좌 등 다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평생학습도시, 인문학의 향기가 넘실대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고창군립도서관(063-560-8051)에 연락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소통

2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사업보고 · 지원 확대 등 검토

유진섭 정읍시장이 오는 24일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를 방문한다.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행정 일환이다.

유 시장은 이날 다문화센터 강당에서 정읍시의 다문화가정 현황과 관련 사업 들을 보고 받고 다문화가정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실에서 오은도 다문화센터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정읍의 결혼이민자는 654명(세대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494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4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192명), 필리핀(87명) 등의 순이다.

유 시장은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다문화 가정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향방문 지원과 다문화센터 기능 확대 등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은 현장행정과 관련, 앞으로 정읍시의 주요사업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은 물론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에 귀 기울이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인소득 증대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노인회 김종열 부안군지회장 취임

김종열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장이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인소득 증대와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김종열 지회장은 13개 읍·면 분회와 이사회의 활성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각종 시책을 행정 당국에 수시로 건의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열지회장은 경로당이 단순 쉼터 기능에서 건강, 여가, 문화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활성화하려고 지역맞춤형 노인 선 호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하여 정서적인 공유의 장으로 지역중심의 경로당 기능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발굴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제공과 자존감 향상 등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김종열지회장은 어르신들이 스스럼없이 내 집같이 노인회를 방문하여 쉬고, 즐기고, 배우고 건의 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노인회 사무실 환경을 개선, 노인회 직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18일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부안군 농기센터, 생활개선회원 대상 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18일 280여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매를 알아야 치매를 이긴다'는 주제로 한국노인의학연구소 김능연 박사의 강의와 목공예를 실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더위 속에 유익한 강의와 실습이 함께 이뤄져 보람있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 중 가장 내실 있게 활동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더욱 성숙한 단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춘숙 생활개선회장도 "생활개선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된 단체가 되려면 회원 모두가 하나 돼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회는 지난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로 출발해 올해로 환갑을 맞은 생활개선회는 6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성숙한 단체로서 60년 동안의 활동기록을 수집·전시하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회고전 성격의 다양한 행사를 전북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함께 준비 중이다. /부안=이옥수 기자